



로쿠잔관



## 오기하라 모리에

Ogihara Moriye 1879-1910

1879년 12월 1일, 현재의 아즈미노시 호타카의 농가에서 5남으로 태어남. 화가를 지망하여 상경(1899년), 도미(渡美)(1901년), 도불(渡佛)(1903년). 파리에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 충격을 받아 회화에서 조각으로 전향. 뉴욕으로 돌아와 학비를 벌면서 연구를 거듭한다.

1906년 파리로 돌아와 아카데미·주리안에서 본격적으로 조각을 연구. 1907년 로댕을 자주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는다. 파리 시대의 작품으로 “갱부” “여인의 몸”이 남아 있다. 이 무렵부터 “로쿠잔(祿山)”이라는 호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1907년 12월 귀국길에 오른다. 일찍부터 동경하던 곳이었던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를 경유해서 1908년 3월 귀국. 같은 해 6월 신주쿠에서 아틀리에를 차리고 제작을 시작한다. 작품 제작과 논설을 통해서 “생명의 예술”을 설파. “호조 도라키치상(像)” “여인(女)”를 제작하기도 1910년 4월 22일 30세로 급서.

그 때문에 남아 있는 작품은 적고, 현존하는 것은 15점 뿐. “여인(女)”와 “호조 도라키치상(像)”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 근대 조각에서 중요문화재 작품은 6점 뿐). 로댕 등으로부터 흡수한 서양의 움직임과 함께 동양의 정감(靜感)을 의식한 조각을 남겼다. 오기하라가 제시한 진실한 예술에 감동받은 예술가들이 뒤를 잇고 있다.



“여인(女)” 1910년 중요문화재

일본 근대 조각의 최고 걸작. 근대 조각으로서 처음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작품을 관철하는 나선상의 상승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매력. 이루워질 수 없는 연모의 끝에 다다른 오기하라의 개인적인 심경이 보편성 있는 표현으로 승화되어 있다. 오기하라의 말

“Love is Art,  
Struggle is beauty”  
를 느낄 수 있다.



“호조 도라키치상(像)” 1909년 중요문화재

머리 부분의 점토를 다루는 것에 주목하면 “갱부”의 제작부터 겨우 2년 사이에 상당히 고밀도의 점토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약간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는 것에 의해 생겨나는 공간 구성이 뛰어나다. 머리부분과 의복의 점토를 다루는 콘트라스트도 매력의 하나다.



“갱부” 1907년

일본에 근대 조각의 문을 열었던 작품. 내부에서 강한 힘이 넘쳐 흘러 확고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조각이라는 것의 매력의 하나가 덩어리로서의 아름다움에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준다.

## 모리에관



《테생》부동사시대



《테생》유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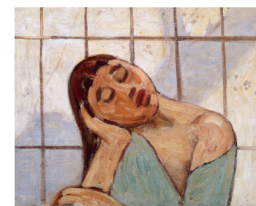


《부두》유학기



《노란 수선》1910년 절필

## 제1 전시동/제2 전시동



사이토 요리  
《법화경》1909년경



야나기 케이ске《치카(千香)상》1910년경



다카무라 고타로 《도와다호수(十和田湖)의 나무상을 위한 중형 조각》1953년



다카무라 고타로  
《손》1918년